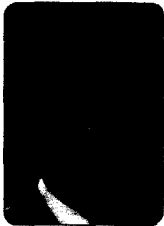


세상은 보는 대로 있다

You See What You Can See



글 / 林 昌 均

(Limn, Chang Kyun)

건축시공기술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주)정·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 부사장.

E-mail: a84000@empal.com

인생이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길이어서, 사노라면 은혜도 주고받고, 해침도 주고 받게 된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게 되고 기대에 미달하면 실망하게 된다. 은혜를 주고받음은 훈훈한 일이다. 모두들 그러하면 좋겠다. 해침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인생의 일부이거나 하고 수용·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다.

어느 책에 써 있었던가, 사람의 어리석음은 동물보다 더한 경우가 많다. 동물은 배가 차면 더 먹지 않고 자기를 해치지 않으면 대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은 배가 차도 먹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하며 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속상해한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함을 표하고 해침을 받으면 관용과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나 해침을 받지 않은 대상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대선을 그어 놓고 그 것에 미달된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다소 정신질환적인 행위이고 기대 수위가 높은 만큼 중증을 보이는 것 같다. 나도 그러하고, 대부분이 그러하고 수행이 깊은 사람들도 다소는 그러하다. 해침을 받지 않고도 속상해하는 것은 과민한 일이다. 특히 종교인이나 수행자들이 이 부분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나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한다. 40 불혹이라 했는데...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명재상(名宰相) 상양(商鞅)은 효종이 죽자 피신하는데 자기가 만든 호패(車裂刑)을 당하여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의원들, 고등학생의 성적에 얽힌 검사·교사, 의사들의 박사학위 매매에 관한 뉴스를 듣게 되더라도,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물러나는 경제부총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받은 연구비를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는 교수님들이 있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인가 어떤 분들께서 부실전문가법(不實專門家法)이라는 것을 추진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 아니라고 해도 이유 없이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몫을 다하기도 바쁜데... (누가 무섭게 한 것도 아닌데) 무서운 생각으로 밤길을 가다 길에 버려진 새끼줄 토막을 뱀으로 알고 놀라는 것이 사람이다.

미움은 강인(強韌)함이 아닌 나약(懦弱)함의 다른 모습이다. 미움을 통해 얻어진 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미움이나 분노(憤怒)를 통해서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쓰나미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있다.
신발 사러 가는 날 길에 보이는 건 모두 신발뿐이다.
길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만 눈에 들어온다. 사람
전체는 안중(眼中)에도 없다.
미장원을 다녀오면 모든 사람의 머리에만 시선이 집
중된다. 그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남편이 껍 소리를 지르면 질겁하
면서도 저 양반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하다
고 한다. 정(情)이란 묘(妙)한 것이어서 자기 가슴에 응
여리를 쌓아가면서도 좋은 양반이란다. 소리를 질러 아
내의 마음에 멍을 들이고 자기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순한 것도 착한
것은 아니고, 바르게, 이치에 맞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이 착한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도 된다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에 응여리가 지고..., 그
응여리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온다면 녹아버
리기도 하나,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두 사람 다 업(業)
을 쌓아가며 장하게도 한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다. 친
구나 지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잘 산다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닌가 보다.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다.

“내일 봐!”

하루살이가 말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모기는 하루살이에게 내
일이 없는 것을 모른다.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어느 분이 덕담



을 하신다고 나와서 기술자들이 면허를 빌려주어서 인식이 나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다. 덕담? 그 자리에는 그런 정도의 인격밖에 아니 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발언하신 분보다 선배·연배께서 많이 계셨다. 그분이 전력(前歷)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라고 해도 이유 없이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사고(思考)의 근저(根底)에 편견(偏見)이 깊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홉시 뉴스에 살인사건이나 강절도사건(強竊盜事件)이 보도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살인자나 강절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국민 모두가 지탄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빌려준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엉터리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폄하(貶下)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불량품은 있다. 말을 가려서 하면 좋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평온하게 하는 분」, 「알뜰하게 하는 분」, 「주먹질하듯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월감이 종종 주먹질하듯 말하게 하는 수가 많다는 데, 항상 또는 자주 주먹질하듯 말하면 본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상대방은 그를 「주먹질하듯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된답니다. 항상 주먹질하는 사람을 누가 진정으로 좋아할 것이며, 그가 도모하는 일을 도우려 하겠습니까? 「말·행동·생각」은 그대로 쌓여 자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해도 주먹질하듯 타인을 대하면 좋은 일한 복을 모두 까먹어 버린답니다. 본인은 나쁜 뜻이 없었다 해도 상대방은 나쁘게 느낍니다. 모두가 그런 나쁜 느낌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기 때문이다.

조화(造化)도 그게 가짜인줄 알 때까지 진짜 꽃이다.

빌려온 가짜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는 그걸 진짜로 값으려고 평생을 고생한 모파상의 어느 여인의 이야기도...

등근 구멍을 “모난 나무토막으로 막아야 한다.” “아니다. 등근 나무토막으로 막아야 한다”하고 다툰다. 구멍이 등근지 모난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등글다 하더라도 그 크기를 분명히 모르고 다투기만 하며, 객관적으로 봐도 등근 구멍을 모난 나무토막으로 막는 수도 있다. 분명히 틀린 일이 시행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놓은 원인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해도... 「천성산」, 「새만금」은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을까? 이것뿐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다투는 이들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나의 적인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 중재기능은 있는 것일까? 있다면 왜 가동하지 못할까? 이 말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가 보다.

날이 저물어 새들이 깃을 접고 숲의 나뭇가지에 머물며 함께 밤이슬을 피하다가 날이 밝아오면 각각 날아가 버리듯, 우리 모두는 잠깐 동안 “우리가 속한 어느 모임”이라는 이름의 나뭇가지를 의지한 채 이 밤을 함께 머무는 인연(因緣)일 것입니다. 동이 트면 새들이 저 갈 곳으로 날아가 버리듯, 우리도 그 어느 때부터인가 각각 다른 인연으로 세상살이를 계속하겠지요.

훗날 서로 다른 나뭇가지에 있게 되더라도 밝은 얼굴로 떠오르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 접수일 2005년 3월 14일)